

# 유치원 3법·위험 외주화 방지법 통과 어렵다

### 여야 대치 속 '성탄 국회' 선물 없이 '빈손 국회' 우려 채용비리 국조 범위·증인 이견...선거제 개혁도 답보 상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12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빈손 국회'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지만 뚜렷하게 진전을 보이는 사안은 없다.

우선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밟는 것까지 고려 중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이견

이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지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현안인 채용비리 국정조사 시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답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특히 증인 문제가 최대 '화약고'로, 해당 부분을 빼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국조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최근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붙을 놓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게다가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조 계획서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

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 안' 기각을 잡아 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답보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각 당의 주력 현안이 뒤엉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탄핵근로제 확대 법안, 정개특위를 비롯한 6개 비상설 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까지 겹쳐 여야의 감정싸움은 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미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운영위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12월 임시 국회 전반에 크고 작은 대치 전선 형성되면서 결국 '빈손 국회'가 현실화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파인텍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가운데) 을지로위원회장, 이수진 최고위원(오른쪽), 우원식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열병합발전소 파인텍 노동자 고공농성장을 찾아 지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 전대 룰 이번주 윤곽

### 단일지도체제 vs 순수 집단지도체제 의견 분분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출 방식, 이른바 '전당대회 룰'이 이번주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새로운 지도체제의 성격이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단일 집단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순수 집단지도체제'(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엇갈린다. 단일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와 달리, 별도 선거로 선출하는 당대표 1인에게 리더십을 몰아주는 체제다.

정우택 의원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 대표에게 2020년 21대 총선을 이끌고, 흩어진 보수 민심을 한데 모으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된 만큼 집중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

닌 김태호 전 지사나 오세훈 전 시장은 집단지도체제 아래에서는 당 대표로 선출된다 해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현역 의원인 심재철·주호영·안상수·김진태 의원 등은 집단지도체제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에 무게를 싣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2월 말~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일정을 역산해 보면,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전당대회 통과 당협위원장 임명 등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변화를 주기에 부담이 따른다는 여론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유시민 '가짜뉴스 대응' 팟캐스트 개시

### 정계복귀설은 부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팟캐스트 방송을 개시한다. 이를 두고, 차기 대선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 이사장은 정계복귀와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추계예술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2018 회원의 날' 행사에서 화원들과 만나 "재단 차원에서 팟캐스트를 하나 하기로 했다. 진행은 내가 직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팟캐스트 개설 취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근거 없이 비방해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우리가 성명을 낸다고 해도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얘기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팟캐

스트에서)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진 국가 정책이나 이슈도 다룰 것"이라며 "반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흑색무민하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이를 정계 복귀의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맡아서 밀자락 같 다음 뭉뚱거리겠다"고 보도가 나올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저를 놓고 (차기 대선 관련) 여론 조사를 한다"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여론 조사할 때 넣지 말라는 본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안내문을 (언론사에) 보내달라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서삼석 의원 '국정감사 우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당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국정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문제에 대해 정확한 문제 제기와 정책 대안을 내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남도의원 2선과 무안군수 3선을 지내며 터득한 현장 경험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철저한 근성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서삼석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지역 발전은 물론 농어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靑 최저임금법 수정 논의

### '녹실회의' 개최...주휴시간 포함 방안 집중 토론

정부는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했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4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온다. 최저임금은 산업별위 임금을 최저임금범상 근로시간으로 나뉘 계산하는데,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 덜 주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적발된 현대모비스나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보류하기 보다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결론이 나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 주재의 녹실회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하려 한다. 옛날 녹실회의 같은 게 필요한 때다. 3~5명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 씨가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말한다. 회의 장소인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주)성원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